

서평 저널리즘을 정착시키자

《출판저널》 200호에 생각한다

유재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의 경우 '서평'의 개념이 분화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즉 본격적인 '비평'인 서평과 저널리즘인 서평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뜻이다.

본격적인 비평인 서평은 책에 대한 '크리티시즘'이며, 저널리즘인 서평은 책을 '리뷰'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크리티시즘'으로서의 서평은 당연히 엄격한 학문적 접근이 되며, 저널리즘 서평인 '리뷰'는 독자로 하여금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가 된다. 이 두가지 가운데서 어떤 성격의 서평을 게재할 것인가는 매체의 속성에 따른 편집정책이 결정할 문제이다.

'크리티시즘'인 서평은 당연히 학술지의 몫이라 할 것이다. 그 학문분야에서 출판된 저서나 번역물에 대해 엄격한 학문적 기준으로 비판하며, 이룩한 성과를 적시하여 그 분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밝히는 한편 보완할 점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학술서적에 대한 '크리티시즘'은 학문활동이 된다. 자신의 저서에 대한 비평에 대해 저자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등 서평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문학평론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학문활동인 서평을 신문이나 상업잡지들이 게재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저널리즘 리뷰는 독자에게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요즘 우리 신문들의 책소개 기사처럼 아무런 평가도 없이 책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다룬 책이며,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용된 자료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새로운 관점은 어떤 것이며, 독자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등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지 망설이는 독자에게 안내 구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신문이나 일간잡지들이 실어야 할 서평은 바로 그러한 '리뷰'가 된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대중매체들은 '저널리즘 리뷰'를 제대로 독자들에게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는 탓이긴 하겠지만 출판사가 마련해주는 신간안내문을 조금 손질하여 실는 것이 관행처럼 된 느낌이 짙다. 그런 까닭에 어느 책이 읽을 만한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 더구나 소개하는 책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껏 책을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요즘의 신문이나 잡지들에 실리고 있는 책소개이다.

이렇게 볼 때 하루빨리 대중매체의 책에 대한 '저널리즘 리뷰'가 정착되어야 하겠거니와, 《출판저널》도 그렇게 되는 데 선도적인 구실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출판저널》은 그동안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왔다. 우리의 출판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언제나 책 그 자체를 중심에 놓고 서평을 위주로 책 출판의 경향과 이슈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출판저널》은 매우 독특한 매체로 자리를 굳혔다. 뿐만 아니라 내용의 수준 또한 자부할 만하다. 따지고 보면 이런 매체가 200호나 꾸준히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다. 앞으로 더욱 독자들의 책 선택에 도움이 되는 서평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특집앙케트 ① 2 '정치지도자'들 지금 무슨 책 읽나
- 김대중 / 김윤환 / 김덕룡 / 김근태
박찬중 / 이 철 / 이기택 / 이한동
제정구 / 홍사덕 / 최형우 / 이부영

특집앙케트 ② 10 지식인 46인이 추천하는 우리시대의 교양서
'평균적인 독서인'에게 권하는 책 152종

출판저널 22 소개와 평가 고루 갖춘 정보제공자 - 정과리
들여다보기 책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기본 - 정진홍
23 나를 일깨우는 이미지 인쇄정보 - 이상일
한 권이라도 제대로 다루는 잡지 - 최 운

창간독자를 찾아서 24 고려대 의과대 신상원 교수
삼성정보센터 이윤정 대리
25 정독도서관 사서 김기애씨
문일중학교 교사 광광택씨

특별기획 / 대학 '출판과' 출신 어디로 가나 28 높은 학력담장에 주저앉는 '출판인력'
30 업계와 평행선 달리는 출판교육
31 출판시장을 읽는 감각 키워야 한다 - 이중한
32 출판사 가는 길, 멀기만 하다
<나의 의견>
- 전영표 / 김학원 / 임종기 / 이종국 / 민병덕

특집 앙케트 ③ 36 젊은 출판인 20인이 내다본 미래의 우리 출판
출판계 구조 변화 체감... 낙관적 전망으로 견실한 꿈

좌담 44 출판문화와 함께 걸어온 10년
창간 이후 200호까지 《출판저널》 안팎의 이야기

48 새책 속으로

52 새로 나온 책

60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표지 사진 / 김지옥

알림

《출판저널》 통권 200호(96년 10월5일자)는 특집기사 관계로 60면으로 증면 발행함을 알려드립니다.